

규제개혁 간담회 모두발언

- 경제단체 · 민간경제연구소 규제개혁 간담회, 1.25(수) -

-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-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 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
새해의 시작과 함께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

<대내외 경제여건>

-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
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동,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큼
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,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이 상존해 있고,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

<규제개혁 추진실적>

- 그간 국무조정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음

정부는 지난 4년간

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(5회)를 통해

입지·인증·신산업 등 파급력 큰 분야를 집중 개선하고

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(8회)를 통해

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규제애로를 집중 혁파하였음

-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

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

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

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<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>

-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
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
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
- 지난해 말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
“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”는 방침을 표명한 바와 같이,
국무조정실은 ‘규제개혁은 민생이다’라는 목표 아래
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
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음
- 또한, 권한대행께서는 내부회의 등을 통하여
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소통을
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신바 있음
- 1년반 동안 지방을 순회하면서 진행해 온
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의 건의내용을 들어보면,
규제는 본인과 크게 관련이 없고
건의하여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여
생활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도 그동안 당국에 건의조차
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됨

- 규제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
-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됨

< 마무리 >

-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직접 설명드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, 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하였음
-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규제개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